

흥기들고 설치는 조폭들... 공포의 광주 도심

야구방망이 무장 이권다툼 벌여 시민 불안감 조성

광주지검, 총장오비파·무등산파 등 9명 구속 기소

이른바 광주 3대 폭력조직으로 불리는 '총장오비파'는 "상대파(조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행동 강령 아래 조직을 확대했다.

조직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로 위 1년 선배의 연락이 오면 일사불란하게 집결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응집력을 과시했다.

이들은 조직의 세를 드러내기 위해 집결 장소도 일반 시민의 출입이 잦은 학교와 커피숍, 공원 등 도심 한복판을 선택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야구방망이 등 폭력도구를 들고 나타나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이들은 세를 불리기 위해 성인보다 영입이 쉬운 10대 청소년들을 조직에 끌어들이는 수법도 동원했다.

비대해진 총장오비파에 맞서 '무등산파'와 '국제PI파', '신양오비파' 등 타 폭력조직들은 연합세력을 구축해 대항하는 등 조직간 이익논리에 따라 수시로 이합집산하는 행태를 보였다. 겉으로는 '의리'를 중요시 했지만, 수시로 상대 조직원을 빼오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일부 조직원은 말을 듣지 않느냐며 조직원을 회갈 등으로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또 시민들을 쇠제철이와 술병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사라진 줄 알았던 조직 폭력배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하고, 위력을 행사했다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이계한 부장검사)는 폭력범죄 단체를 결성하고 무장한 상태로 도심에 집결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등의 구성)로 광주지역 조직폭력배 20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 기소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2명은 소년보호사건 송치,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 10대는 7명이었다.

이들은 2015년 4월 심야에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학교, 공원, 커피숍 등 도심 한복판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집결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원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과 관련해 다른 폭력조직원과 이권다툼에

나섰다가 공격을 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집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 조직폭력배들이 이를 미리 알고 도주하면서 실제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평소 상습적으로 시민은 물론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흥기 등으로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폭력조직원들은 지난 3~4월 맥주 유통권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112에 외국인 성매매를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기도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총장오비파 하부조직은 와해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 폭력범죄단체의 세력 다듬 등 조직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특히 조직원 개인의 개별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 구속 수사 및 중형 구형 등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주차 안되는데... 18일 차량진입 및 주정차가 금지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무단으로 진입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5·18민주광장은 수많은 시민들의 나들이 장소나 각종 행사에 활용되고 있어 불법 진입 차량으로 인한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학교수가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발언' 논란

순천대 교수 지난 4월 강의 중... 학교측 진상조사 나서

순천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순천대와 이 대학 사범대 학생들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4월께 강의 중 위

안부 할머니와 여성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A교수는 강의 중 위안부 할머니를 언급한 뒤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상당히 알고 있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야"라

고 말했다.

그는 또 젊은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대 여성은 축구공이라고 합니다. 공 하나 놔두면 스물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식의 발언으로 여학생들의 공분을 샀다.

그는 강의에서 배제시켜 달라는 이메일

을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뒤 이번 학기부터 수업에서 빠졌다.

학생들은 A교수의 발언이 담긴 휴대전화 녹음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과를 촉구했다.

순천대는 A교수가 속한 학과의 공문을 토대로 현재 위안부 할머니 및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대는 오는 29일 학생들이 제공한 녹취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한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8, 해질 18:34, 달출몰 04:57, 달몰입 18:10

구름 많고 선선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20/28	보성	구름많음	17/26
목포	구름많음	21/26	순천	구름많음	19/29
여수	구름많음	20/27	영광	구름많음	19/27
나주	구름많음	19/28	진도	구름많음	20/27
완도	구름많음	20/27	진남포	구름많음	18/27
구례	구름많음	16/27	군산	가끔흐리고비	19/27
강진	구름많음	19/27	남원	흐림	16/27
해남	구름많음	18/27	축산도	구름많음	19/25
장성	구름많음	18/27			

◇비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	남서~서	0.5~1.0
남부	면바다	남~남서	0.5~1.0	남서~서	0.5~1.5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	남서~서	0.5
서부	면바다(동)	서~북서	0.5~1.0	남서~서	0.5~1.0
남부	면바다(서)	남~남서	0.5~1.5	남서~서	0.5~1.5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파부질현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6:45	01:26
		18:55	13:37
여수		02:16	08:29
		14:26	20:50

◇주간 날씨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26(화)
☀	☀	☀	☀	☀	☀	☀
19/26	15/27	15/28	16/28	16/28	16/28	16/28

"아웅산 수처, 광주인권상 박탈해야"

참여자치21, '인종청소' 로항야측 사태 수수방관

광주시민단체가 '아웅산 수처, 광주인권상 박탈해야' 보도(광주일보 12일자 7면)와 관련, "미안마 실권자 아웅산 수처에게 준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18일 성명에서 "미안마 실권자 아웅산 수처가 '인종청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로항야측 유혈 사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다"며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처 여사는 미안마군의 무자비한 인권 유린에 수수방관함으로써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마땅히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에 대한 취지권과 권위를 재평가하고, 수상자 선정에 대한 체계화된 검증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은 2004년 미안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처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고, 광주시는 2013년 그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미안마 군부는 지난달 25일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항야측을 상대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 수많은 사상자와 피난민이 발생했다. 아웅산 수처는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 비난을 받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서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행사 열려

고(故) 백남기 농민의 1주기 추모행사가 18일 광주와 전남에서 열렸다.

추모행사는 광주 망월동 옛 묘역 추모미사와 추모 사진전, 촛불문화제 등이 24일까지 이어진다.

백남기 농민 1주기 광주전남추모대회 광주준비위원회는 18일 광주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추모 공연과 기록전을 열었다. 전시는 백남기 농민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 손때 묻은 팽과

리아 옛 사진, 평소 읽던 책 등이 나왔다.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 광주준비위는 오는 24일 고인 묘소가 마련된 북구 망월동 5·18 옛묘역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추모 미사와 민중대회를 이어간다.

백남기전남투쟁본부는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부터 1주일 동안 백남기 농민 1주기 주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목실, 절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